

여러분은 한 해의 끝자락에 도달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시나요? 개인적인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 이맘때쯤 장만한 탁상달력이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갈 때 비로소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 한 해가 저물어간다는 걸 매년 알람처럼 일깨워주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올해 사업이나 활동을 매듭짓고 이제 내년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일 텐데요. 요즘 연구소 활동가들도 일 년 활동을 결산하는 평가 시즌에 막 접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구소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제모임이 정말 다양하게 꾸려져 있고, 그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 또한 무척 풍성한데요. 짧은 지면에 그 모든 이야기를 빠곡히 담긴 어려우니 오늘은 <일터>를 함께 만드는 선전위원회에서 얼마 전 나왔던 '1년 활동' 평가를 짚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연구소 서울 사무실에서 선전위원들이 함께 모여 올 한 해 동안 <일터>를 직접 기획·편집하고 결과물을 받아본 소감도 나누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일터>를 꾸며나갈지 가능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 선전위원이 지금과 같은 지면 구성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던 만큼, 새로운 시도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을 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부 코너의 경우 필자 섭외가 여의치 않거나 소재 고갈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공유하였는데요. 한편으로는 노동안전보건 이슈와 쟁점을 다루는 지면에서 많은 영감과 자극을 받기도 하지만, 무거운 느낌의 글들이 전반적으로 많아 숨고를 틔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나온 선전위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소폭 개편을 시도해 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돌아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했던 일 년이었습니다. 그만큼 연구소가 해야 할 일들도 곳곳에 넘쳐났고요! 연구소가 2025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활동들을 되짚어보고, 과제는 무엇인지 잘 새겨 이후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이정표로 삼아야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일터> 독자님들의 가감 없는 질책과 제언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 2025.11.15. 선전위원회 워크숍에 함께한 선전위원들이 일터를 들고 나란히 포즈를 취했다. 사진 : 임용현